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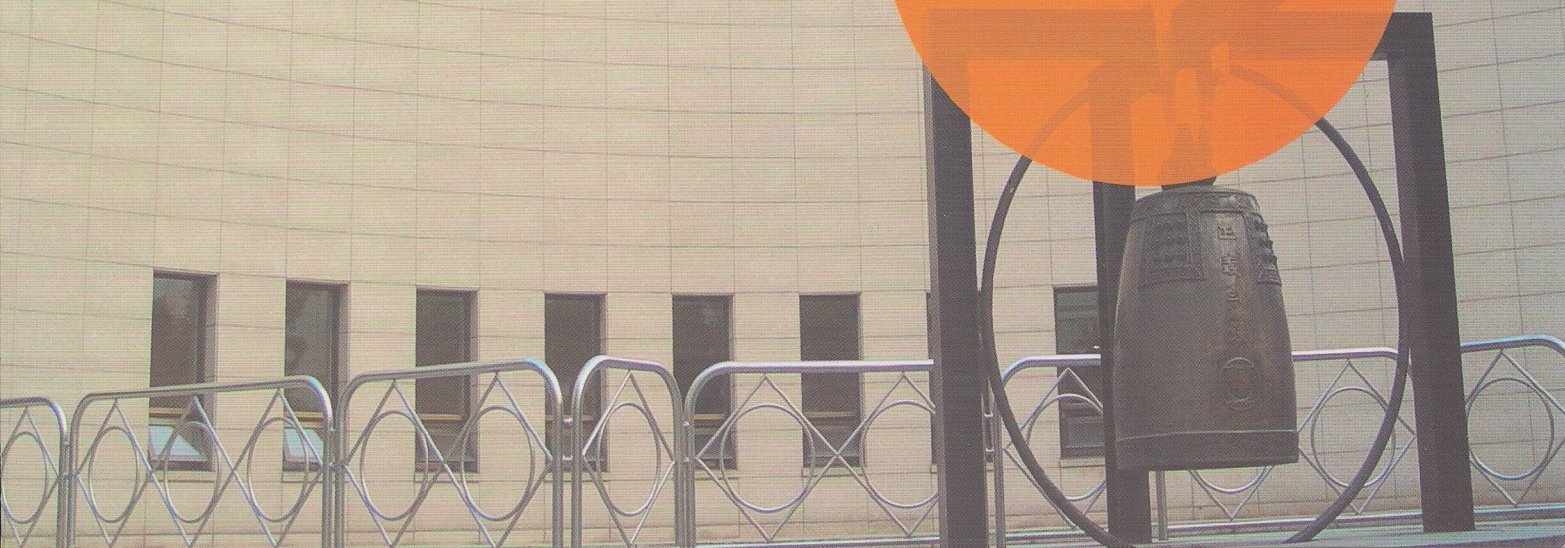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近代法學教育百周年紀念館
1895-1995

2006 Vol.7





Vol. 7

Snu Law Magazine

正義



CONTENTS

- 02 발간사** 정의의 종 제7호를 내면서_학장 인사말
- 03 후원소식** 법학발전재단 기부금 내역
- 04 특집**
1. 신임교수 소개
 2. 외국인 초빙교수 소개
 3. 서울법대-프라이부르크 법대 공동심포지움
 4. 서울법대 초청강연 소개
- 21 법대소식**
1. 서원우교수 1주년 추모행사
 2. 최송화 교수 정년식
 3. 법대 82학번 홈커밍데이
 4. 2006학년도 법과대학 후기 학위수여식
 5. 학장단 주최 동아리 학생회 회장 모임
 6. 우수장학생 시상식
 7. 졸업사진 촬영
- 28 학술활동**
- 국제학술활동
국내학술활동
교수 집담회 및 법과 문화 포럼
서울법대 교수진의 저작물 소개
최고지도자과정(ALP) 소개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 40 학생활동**
- 법대 학술제
법사회학회 모의재판
법대 학장배 축구대회
법대 풍물패 질풍 가을공연
- 47 동문인터뷰** 목영준 헌법재판관 인터뷰
이재후 신임동창회장 인터뷰
- 57 교수동정**
- 60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발행인 _ 호문혁 편집 _ 정중섭, 이원우, 김재환 발행일 _ 2006년 12월

발행처 _ 151-74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산56-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법과대학\)](http://law.snu.ac.kr(법과대학)) [http://snu.lawfund.or.kr\(법학발전재단\)](http://snu.lawfund.or.kr(법학발전재단)) [http://jus.snu.ac.kr/~lawnews\(법과대학 뉴스레터\)](http://jus.snu.ac.kr/~lawnews(법과대학 뉴스레터))

“정의의 종 7호를 내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법과대학 학생들도 졸업 전에 일정 기간 외국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와 국제화를 하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가을은 유달리 빨리 스쳐 지나가고 이제 우리 모두가 겨울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가 제 목소리를 내다보니 세상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 어수선한 세상에서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께서 별고 없이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일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시끄러운 것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수록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리 법대는 이번 학기 초에 세 분의 새 선생님, 즉 상법 분야에서 김화진(金化鎭) 교수, 민법 분야에서 권영준(權英俊) 교수, 공법 분야에서 허성욱(許盛旭) 교수를 모셨습니다. 이 분들은 앞으로 우리 법학과 우리 법대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인재들이어서 마음 든든합니다. 앞으로 이 분들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그 동안 우리 법대는 외국의 명문 법과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학술교류를 하여 왔습니다. 그 예로 지난 9월에는 독일 Freiburg 법대 교수 9분을 초청하여 우리 교수들과 비슷한 주제로 1:1로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는 일본 도쿄대에 가서 공동심포지엄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 대학이 세계 곳곳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법과대학 학생들도 졸업 전에 일정 기간 외국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와 국제화를 하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문과 후원자 여러분께 끊임없는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됩니다. 부디 건강 유지 잘 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에서 큰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2006년 12월 1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호 문 혁(胡 文 赫)



법학발전재단 기부금 내역

날짜	기부금영수증 번호	기부자		기부액
		성명	주소	
06.06.07	29	최상엽	법과대학 14회 동기회 회원일동	20,000,000
06.06.14	30	윤주원	덕양산업회장	100,000,000
06.06.27	31	이근수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21기 수료생일동 - 06.1학기 개설과정	10,000,000
06.07.06	32	남유선	85학번	1,000,000
06.07.06	33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2,000,000
06.07.31	34	구본세		50,000
06.08.30	35	구본세		50,000
06.10.02	36	구본세		50,000
06.10.16	37		서울대 법과대학 ALP 4기 일동	80,000,000
06.10.30	38	구본세		50,000
06.11.06	39	민창식		1,000,000
06.11.15	40	Maureen Clark	국제형사재판소 판사	300,000
06.11.16	41		82학번 동기회 모임	100,000,000
계				314,500,000



특집

1. 신임교수 소개
2. 외국인 초빙교수 소개
3. 서울법대-프라이부르크 법대 공동심포지움
4. 서울법대 초청강연 소개

특집

01

신임 권영준 교수

지난

10월 10일 오후, 본교 17동의 연구실에서 이번에 본교로 새로 부임한 권영준 교수님과 인터뷰가 있었다. 이번 인터뷰에는 법대 뉴스레터에서 정연희(03)와 박희원(04) 기자가 참석하였다.



기자: 우선 모교로 돌아온 것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권영준 교수님(이하 권): 1989년에 본교에 입학했습니다. 원래 89학번이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1990년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여, 실질적으로는 90학번으로도 볼 수 있죠. 1993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4년에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제25기를 수료하고 해군법무관을 거쳐 1999년에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본교로 오기 직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있었습니다. 석박사 모두 본교에서 취득했고, 미국 Harvard 로스쿨서 LLM를 취득했습니다.

기자: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셨다면?

권: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등지에서 선교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기자: Harvard 로스쿨에 가시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원: 대법원서 판사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법관을 선발하여 visiting scholar 혹은 학위과정으로 보내줍니다. 저는 후자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영어성적으로 선발했으며, 제가 갔을 때는 영어성적 및 근무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지금은 법관들을 대부분 보내주되 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통 법관들이 미국 로스쿨에서 공부하고 오는 것은 직접적으로 실무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회사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등 미국이 강세를 보이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실무에서도 그러한 판례나 법리를 참고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시각과 경험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자: 어려서부터 판사가 꿈이었습니까?

원: 사실, 원래는 경제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고3 때 어떤 계기로 법대로 진로를 바꾸어 서울대 법대에 지원했었습니다.

기자: 다시 학교로 돌아온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판사로 내리는 판결과 교수로서 하는 연구활동 중에 사회적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원: 법관은 명예로운 직업이기도 하고 앉아서 연구할 기회가 많기에 학구적인 직업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적성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 더 명예롭고 학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자 역시도 적성에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판결과 교수의 연구 모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적 영향력은 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판사로 내리는 판결들은 직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지만,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수한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기자: 모교로 돌아오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 행복합니다. 학생으로서 다니던 추억도 많이 떠오르고, 익숙한 곳이기에 마음이 편합니다.

원 교수님은 학창시절 때 테니스 등의 운동을 즐겼으며, 음악활동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한다. 서울대학교 합창부에도 잠시 활동했으며, 중학교 때까지는 바이올린을 전공하려고 하기도 했다. 대구 청소년교향악단과 미국 유타 청소년교향악단에서 열연을 했으며, 재판부 시절에는 수원 체임버 오케스트라에서도 활동했었다.

교수님의 학창시절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히 연애 얘기도 흘러나왔다. 교수님은 신입생 시절부터 만나던 동갑의 여학생과 결혼했으며, 현재 2남 2녀를 두고 있다.

기자: 이번 학기에는 어떤 과목을 맡으셨습니까? 그 수업 반響은 어떠합니까?



권: 학부에서는 민
법총칙을 맡았고, 대
학원 수업은 재산판
례연구를 맡았습니
다. 특히 학부장의는
과워포인트 등 시각
적 자료를 향후에 많
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학생
들의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 매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몇 명으
로 구성된 패넌을 만
들어 질문과 답변을

패넌에게 집중시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자: 교수님의 주된 연구 분야는 무엇입니까?

권: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영미법과 대륙법 양 법대가 민법에서 어떻게 통합되는지 공부하고 싶습니다. 법학의 각 분야마다 영미법과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왔으며 전통적으로 민법은 대륙법계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요즘은 양법대가 점점 통합되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럼 마지막으로 법대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 머릿속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태도와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와 많은 것을 받아들이려는 개방적인 태도에서 우리나라의 습관이 젊은 시절부터 배어있다면, 향후라도 진가가 발휘될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러한 태도와 습관을 기반으로 성공을 향해 계속 뻗어나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집 01

신임 김화진 교수

뉴스

레터에서는 지난 19일(목)에 올해 새로 법과대학에 부임한 김화진 교수를 인터뷰하였다. 김화진 교수의 17동 연구실의 곳곳에 자리잡은 과학서적이나 각국의 미술품 등에서 교수의 다양한 관심사를 엿볼 수 있었다. 이유진 기자(03)과 박희원 기자가(04) 참여하였으며 인터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기자: 출신학과는 다르신 줄로 압니다만, 모교에 부임하신 소감이 남다른 것인데요.

김화진 교수(이하 김): 영광이면서도 얼얼합니다. 이번 학기도 벌써 중간고사기간인데 지금까지 아주 좋은 느낌입니다. 실무를 할 때에는 의뢰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했는데 학교에서는 강의나 연구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바라던 점이기도 하고, 매우 기쁩니다.

기자: 교수님께서도 독특하고 다양한 경력을 지니고 계신데요, 간단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김: 고등학교 시절엔 수학을 잘해서 이과생이었고 서울대도 자연과학계열로 입학해 수학과로 진학했습니다. 그러다 79년 박정희 전대통령 시해사건 이후 학교가 4학기 정도 폐쇄되어 방황하던 차에 고시공부하던 친구들을 계기로 법학을 접했지요. 가장 처음 접한 법학서적이 고 이한기 교수님의 '국제법강의' 였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법학공부를 위해 독일 뮌헨대로 유학을 가서도 국제법을 전공했고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이신 브루노 짐마 교수님 지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친구의 제안으로 한화그룹 경제연구원에 법률전문가로서 입사하였습니다. 일하면서 변호사 자격의 필요성이 느껴지기에 미국에서 LL.M.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해 이후로 국내외에서 국제변호사로 활동해왔지요.

기자: 미국에서도 노스웨스턴 법대와 하버드 법대 두 군데를 다니셨던데요.

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미국 법과대학 학점이수 규정이 있는데 학교마다 외국학생이 취득 가능한 학점이 달랐습니다. 여러 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고르던 중 하버드를 택하면 학점이 다소 부족할 듯 했고 노스웨스턴 대학은 끈질기게 입학해줄 것을 부탁해왔지요. 그래서 결국은 두 군데를 차례로 다니기로 한 겁니다.



기자: 각국의 여러 대학을 다니고, 접해보셨는데 학풍을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김: 한마디로 장단점을 말하기는 어렵고 독일과 미국에서 보낸 기간도 비슷했습니다. 다만 미국 대학이 공부의 집중도는 더 높았지만, 처음 방문한 외국인인데다 원래 독일 문화를 좋아해서 독일이란 나라에 대한 호감이 많았기 때문인지 독일 대학에 대한 생각이 이후로도 떠나지 않더군요.

기자: 로펌에서 국제 M&A 컨설턴트로 계시기도 하시고, 고려대와 서울대의 경영대에서 오랫동안 강의해오셨는데요, 경영학문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김: 처음 일을 시작했던 곳이 한화그룹이라는 회사였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 참여했던 업무도 그 리스 은행의 인수였고 이후로 많은 경험을 쌓아온 덕이지요.

기자: 법대에서 앞으로 집중하고자 하시는 연구방향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김: 일단 상법교수로서 담당과목에 충실해야 할 테지요. 특히 국제회사법을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가르친 적이 있고 여기서도 그 연장선상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 연구해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신임교수로서 주제넘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추진하고 싶은 세 가지 계획이 있는데요, 우선 법과대학과 학생들이 국제화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국제적 학술지의 논문기고나 외국학 교와의 교류도 늘리고, 국제적 관점을 강의에 반영하는 등, 송상현 선생님께서 진력하시는 '한국법의 세계화'의 연장선상에서 노력하고 싶습니다. 경영학, 경제학과 법학의 상호교류에도 일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아직은 비밀로 해두지요.

기자: 수업 중에도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체력관리를 하고 계신지요.

김 나중에 실무를 맡게 되면 격무에 밤을 새는 일이 잦은데다 외국사람들과 일을 하면 시차로 인해 새벽일을 하게 되곤 하지요. 그럴 때 체력부족으로 피로가 쌓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하면 실력부족이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체력은 정말 중요하지요. 다만 특별한 관리방법은 없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체력관리랄까요.

기자: 어떤 취미를 지니고 계신지요.

김: 고대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집트사에 대한 책을 많이 읽지요. 헨콕이나 보발 같은 '이단 학자'들의 책도 빼놓지 않고 봅니다. 교양과학에도 흥미를 잃지 않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요즘 읽은 미치오 가쿠의 '평행우주'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군요. 비전문가들이 물리학의 최근 경향을 알기 쉽도록 서술하고 있어요. 중국 피아니스트인 윤디 리의 열렬 팬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골 음악카페에 가서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기자: 학업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김 우선 학교측의 기준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정규분포대로 나가겠지만, 학기나 과목에 따라 어떤 이유에서건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치던 시절, 학교측이 교수님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평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일 겁니다.

기자: 끝으로 법대학생들에게 한 바디 남겨주시겠습니까.

김 제가 이 학교에서 가장 기쁜 것은 지적 재산이나 품성이 풍요로운 선배, 동료교수님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교수님들이 가진 것을 충분히 전수 받을 수 있기를 바라지요.

또한 메일 등으로 개인적으로 진로상담을 해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조언해주고 싶은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국제무대에는 여러분 못지않은 교육수준에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있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장차 경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지요.

특집

01

신임 허성욱 교수



지난

11월 15일 오후, 본교 17동 연구실에서 올해 새로 법과대학에 부임한 허성욱 교수님과 인터뷰가 있었다. 이번 인터뷰에는 유승진 기자(04)와 최용우 기자(00)가 참석하였다.

기자 :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선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출신학과가 경제학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법학공부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허성욱 교수 (이하 허) : 91년에 경제학과에 들어왔습니다. 그 때는 경제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노력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지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법학 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이 가지는 의의나 중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법학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학년 때부터 법학공부를 시작했고, 96년에 법대 대학원에 진학해서 2001년에 졸업, 다시 박사과정에 진학해서 2005년 2학기에 수료했습니다. 그 중간에 고시공부를 했고 98년부터 연수원 생활을, 2000년부터 군법무관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 후 2003년부터 약 3년 반 동안 판사로 근무한 후 이렇게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했고, 공부하는 직업이든지 교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법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난 다음부터는 꼭 교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안했던 것 같아요. 판사가 된 다음에는 다들 그렇지만 좋은 판사, 좋은 법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교수가 된 건 좀 갑작스러운 인생의 변화였습니다. 올해 갑자기 기회가 주어져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판사로 사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훌륭한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아서 학교로 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자 : 공법과 법경제학을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부수업은 환경법연습을 받고 계시더군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요?



허: 저는 공법전공으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행정법, 헌법, 민법 등으로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야든 공부가 좀 더 깊어지면 통합되어 있고 법학의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전공, 더 나아가면 법학 외의 경제학, 정치학 등과 맞닿아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법전공으로 들어왔고, 공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행정법, 헌법 등의 맥락이지요. 국가의 역할, 개인에 미치는 국가의 역할, 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 사람이 살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나 정부에 위임해서 일을 맡기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

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법적인 법률관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 분야의 교수로 오게 되었고, 그러한 연구대상에 접근하는 학문적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Law & Economics입니다. 시장의 기능이나 정부의 역할 모두 따지고 들어가보면 자원배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너무 많은데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나눌지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한 자원배분의 문제에 관해서 똑같이 관심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분야는 경제학입니다. 인간들의 선택의 방식, 선택의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게 경제학이라면 그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가 법학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른 면에서 보는 것인데, 우리나라 법학의 경우에는 너무나 따로 발전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공법적인 주제들에 관해서 Law & Economics(법경제학)적인 학문적 방법론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법은 행정법의 가장 큰 주제이고 대표적인 공법의 영역입니다.

기자: 법대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연구방향이라던가 계획이 있으세요?

허: 다시 정리하자면 법의 문제가 자원 희소성 문제에서 발생하는 rule-making, 원칙과 제도를 설계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과 정부의 역할과 상호 관계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도 공법의 주제인 것 같고... 이미 알고 있는 전공으로 분류하자면 행정법과 헌법이 되겠지요. 그 주제를 관심을 두고 공부를 할 계획이고, 학문적 방법론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Law & Economics가 주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경제학도로서 법경제학을 연구하는 데 특별히 더 도움이 되었나요? 실제로 법대에 법학과 경제학을 복수전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사회과학이라는 게 인간이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문제인데, 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경제학을 공부하면 법만 공부했을 경우보다 보다 다양하고 다층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한 학기가 끝나가는데, 강의도감이 어떠세요?

하: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학생들의 수업참여, 충실도나 열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매 들어가는 수업시간이 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자: 학부시절 특별한 활동 같은 걸 하신 건 있나요?

하: 저는 서예회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했었고 거기서 많은 선배들,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거기서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단계들 - 상처, 행복 등 많은 경험을 했었는데, 그 경험과 기억이 많은 자양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법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공부 외적인 것으로, 인생의 선배로 조언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하: 좀 더 학생들에게 권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좀 더 열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법학이란 과목이 어딘가 좀 딱딱하고 엄격하게 체계화가 되어 있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미 만들어진 틀 속에서 갇혀서 그 바깥의 세계를 못 보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고 느꼈던 게 전부인 듯한 착각을 하게 된다는지, 법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가치관이 정립될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학교 법대생 같은 경우는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면 의사결정을 하게 될 지위에 있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법에서,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정답이 나오거나 틀에 맞추면 답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에 맞게 세상이 만들어지고 재단된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려면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책을 많이 봐야겠죠. 법학뿐만 아니라 인접한 다른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관한 문제를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종당에는 법학, 그리고 법률가로서 일을 하는 데에도 훨씬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열린 마음을 갖고 폭넓은 독서를 하고 사회과학에 대해서 고민, 성찰한 기회를 갖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특집

02

외국인초빙교수_ Shuenemann 교수



법대뉴스레터에서는 지난 10월 26일(목), 본교의 방문교수 Wolfgang B. Shuenemann교수를 인터뷰했다.

Shuenemann교수는 1974년 기업구조이론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독일 Dortmund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이다. 독일 다수의 대학에서 경영학, 경제학에 관한 법을 강의하였고 벨라루스, 러시아, 중국 등에서 방문교수로 재직하고 2006년 2학기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방문교수로 부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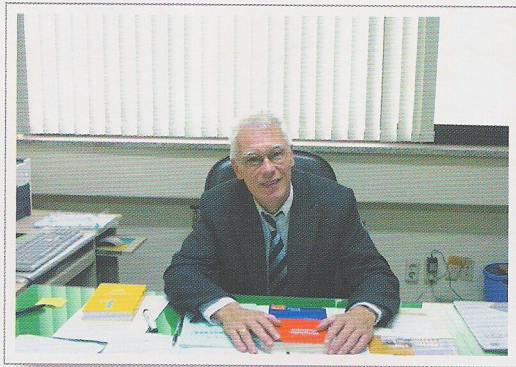
Shuenemann교수는 사경제와 경영학법(Private Economic and Business Administration Law)의 전문가로 경쟁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관한 다수의 저작이 있다. 1998년 이래로 독일연방정부의 벨라루스 "Transform"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5년부터 독일 재정경제부의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터뷰는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으며, 전공분야인 법경제학과 "Transformation"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여러 국가에서 연구하고 강의하신 교수님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태도, 그리고 대학 교육에 대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 인터뷰에는 법대 뉴스레터의 이유진(03), 유승진(04)기자가 참여하였고, 영어로 진행되었던 바 요약번역하여 옮기고자 한다.

기자: 서울대학교에 대한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Shuenemann: 솔직히 말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인상적이었고 독일의 그 어떤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대학들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연구성과도 뛰어나지만, 정말로 서울대학교는 멋집니다. 캠퍼스가 정말 멋지고 시설도 훌륭합니다. 특히 중국의 대학과는 매우 다릅니다. 중국은 대학에 높은 벽이 많은데, 여기는 열려있는 공간이어서 좋습니다.

기자: 서울대학교에 오게 되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Shuenemann: 나는 독일 학생들과 그 외의 국가 학생들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미국의 대학에는 있지 않았습니니다. 아시아와 동유럽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매우 조용하고 강의 내용을 단지 받아 적기만 하지만, 독일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매우 적극적이고 교수의 의견에 반박을 많이 하지요. 대학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교적 관념이 강한 아시아 학생들을 권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질문으로 웃음거리가 되거나, 혹여나 교수가 대답하지 못할 경우 교수의 권위를 염려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교수의 실수를 알아차려도 반박하지 않죠. 그렇지만 교수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기자: 그렇다면 지금 받고 계신 강의에는 만족하지 못하시나요?

Shuenemann: 물론 아닙니다. 이 강의에는 독일법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수강하는데, 수는 적지만 매우 흥미로워하고 강의 참여에 적극적입니다.

기자: 다소 사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Shuenemann: 그럼요. 나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적인 생활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지요.

기자: 학교가 끝나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Shuenemann: 우선 나는 대학에서는 가르치는 것(teaching)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토론하며 배워가는 것이죠.

강의 외의 시간에는 연구를 합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연구하는 것도 나의 일이기 때문에 연구실에서 읽고, 생각하고, 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지요. 두 번째로는 한국의 곳곳을 관광합니다. 경주와 수원, 서울의 많은 곳을 다녀왔어요. 한국어는 못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구경하죠. 또 관악산도 네 번이나 다녀왔어요. 독일 사람들은 걷는 것을 싫어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돈 쇼반니' 공연이 정말 훌륭해서 오늘 세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책을 읽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합창단에 가입해서 11월 24일에 무대에 섭니다. 독일에서 성악 교육을 받았는데, 노래를 꽤 잘해요.

기자: 아시아음식은 좋아하시나요?

Shuenemann: 예의적으로 답해야 하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답할까요?

기자: 솔직한 답변이요.

Shuenemann: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유럽 음식을 그리워할 때도 있죠. 솔직히 김치는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나오면 먹습니다. 모든 문화를 좋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문화를 존중합니다.

특집

03

서울법대_ 프라이부르크 법대 공동심포지움



지난 9월 25일 (월) 저녁 6시에 호암교수회관 에투아르 방(Etolles)에서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대에서 온 교수들과 서울법대 교수들의 만찬이 있었다. 이번 만찬은 2006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17동 서암홀 및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3회 서울법대-프라이부르크 법대 공동심포지움을 위한 것이었다.

9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서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법의 변천(Wandel des Rechts in einer wandelnden Gesellschaft)'이라는 제하의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 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1세기 세계속의 한국법의 발전 교육연구단이 공동으로 주관한 것이다. 서울법대는 현재 동경대 법대, 듀크대 법대, 프라이부르크 법대 등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협력을 행하고 있다. 특히 프라이부르크 법대와는 지난 1998년 협정을 체결한 이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올린 바 있으며 2002년부터는 2년 마다 서울과 프라이부르크를 오가면서 공동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양교 간의 학문적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다.

심포지움은 5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졌으며 제3세션까지는 26일에, 나머지세션은 27일에 열렸다. 26일에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법대 17동 서암홀에서 간단한 개막식을 가졌다. 교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가 있었는데 일부 교수들은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공법분야는 서암홀에서, 사법 분야는 5층 교수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세션

- * 송석윤, 한국에서의 헌법제정과 헌법개정 - '6월헌법'의 1차 개정과 관련하여
- * Thomas Wurttenberger, 헌법개정과 헌법의 변천 - 국가적 관점으로부터 세계적 관점으로
- * 오정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절차의 특수성

- * Dieter Leipold, 자본시장법상의 분쟁에 대하여 새로 도입된 표본소송 - 특히 표본재판의 효력에 관하여

제2세션

- * 이근관, 국제법상 소수자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 Dietrich Murswiek,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적극적 의무
- * 김형석, 기본권이 한국 사법에 미친 영향 - 최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 * Gunter Hager,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私法에 대한 유럽공동체협약의 기본적인 자유권의 영향



제3세션

- * 이원우, 경제공법에 있어서 공익
- * Andres Vosskuhle, 경제공법의 공서양속 유보
- * 최봉경, 국제혼인 및 이혼에 관한 한국의 국제사법
- * Rainer Frank, 독일 국제사법의 혼인과 이혼

제4세션

- * 이용식, 형법에 의한 경제통제수단으로서의 배임죄 -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과 관련하여
- * Walter Perron, 형법에 의한 경제통제수단으로서의 배임죄
- * 박상근, 한국의 새로운 인적회사제도
 - * Hanno Merkt, 독일 인적회사법의 새로운 경향



제5세션

- * 신동운, 명예형 제도의 개선방안
- * Wolfgang Frisch, 사회변화의 결과로서의 형법의 변화
- * 최병조, 고대 로마의 저작권 관념 - 연극상연을 중심으로
- * Maximilian Haedicke, 지적재산권법의 유럽화의 틀 안에서의 저작권의 변화

특집

04

서울법대 초청 강연

| 제 1회 서울법대 초청 강연- 안대희 대법관 |



지난 11월 2일(목) 오후 12시, 법대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제1회 서울법대 초청 강연이 열렸다. 서울법대 초청 강연은 격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법조계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 행사로, 강연자 섭외 등에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초청강연을 통해 선배로부터 법학자로서의 진로, 법학자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본 강연의 취지이다.

제1회 강연자로는 안대희 대법관이 초청되어 '내가 걸어온 법률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안대희 대법관은 서울법대 73학번으로 검사 재직 중 특수수사 분야에 주로 활약하였으며, 불법대선자금 수사 등 소신 있는 수사로 '국민검사'라는 별칭을 얻었고 2004년 국제검사협회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지난 2006년 7월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강연 시작 전 호문혁 법대학장이 서울법대초청강연의 취지를 밝혔고 안 대법관은 동숭동에서 관악으로 이전한 캠퍼스의 변화에 대한 감회로 강연을 시작하였다.

안 대법관은 우선 부와 명예,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법조계의 화려한 외면과는 다른 법조계 내부의 위기를 언급하고, 법과 현실의 문제, 연고주의, 실효성의 문제 등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검사로서 그동안 활약하였던 수사 이야기를 하며 과감한 검사, 용기있는 검사라는 세평에 대해 단지 고민을 많이 하고 법과 원칙에 의지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부패의 산물인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 당시 특별수사검사로서 참담한 심정이었으며 원칙적으로 수사할 것을 다짐하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대법관은 후배들에게 법은 평등과 박애 등 정의의 실현이며, 기본 없는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며 기본인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역할은 법조계의

가족주의와 연고주의를 극복하여 한국사회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것이지 법조인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월의식을 버리고 보람과 직업윤리, 사명의식으로 무장한 법조인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강연은 주산홀의 좌석이 모자라 계단에 앉거나 서서 들어야 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법대 초청강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임성열 학생(법학 05)은 본 강연이 안대희 대법관의 솔직한 모습을 알 수 있어 좋았다고 말하였으며, 이동민 학생(법학 04)은 본 강연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될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1회 서울법대
초청강연
서울法大



近代法學教育百周年紀念館
1895-1995

법대소식

1. 서원우교수 1주년 추모행사
2. 최송화 교수 정년식
3. 법대 82학번 홈커밍데이
4. 2006학년도 법과대학 후기 학위수여식
5. 학장단 주최 동아리 학생회 회장 모임
6. 우수장학생 시상식
7. 졸업사진 촬영

正義

남하 서원우 교수

01

1주년 추모행사



10월 13일(금)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남하 서원우 교수의 1주기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후학들이 서원우 교수의 학문세계를 되짚어 보는 뜻깊은 자리였다.

남하 서원우 교수는 195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래 미국 미네소타대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귀국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6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조교수로 출발하여 1996년 정년퇴직하기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재직하였다. 상공자원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활동하였으며 한국 공법학회와 한국 환경법학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30년 근속상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법과대학 김도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법학연구소 정인섭 소장은 자리의 의의를 밝히고 추후 작고한 교수들의 학문적 업적을 돌아보는 1주기 추모행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개회사를 전했다.

이어 법과대학 이원우 부학장이 고인의 약력을 간략히 보고하였으며 법과대학 호문혁 학장이 추도사를 전하고, 서울대학교 유현 명예교수와 서울대학교 최송화 명예교수가 차례로 추모사를 전했다.

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가 서원우 교수와 한국의 행정법학이라는 주제로 서원우 교수의 행정법학의 특징과 성과를 점검하였다. 서원우 교수는 행정법의 대다수 방면에 걸친 연구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행정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중심테마로 삼아 문제해결 중심의 실학적 행정법학관을 정립하였다.

유족대표의 인사를 끝으로 행사는 폐회하였으며 참석한 교수진과 내빈 일동은 주최측이 마련한 만찬을 함께하며 고인을 추모하였다.

법과대학 최송화

02

교수 정년퇴임식

8월 31일 목요일 오전 11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최송화 교수(행정법)의 정년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최송화 교수 외 서울대 각 단과대학의 정년을 맞은 교수 27명에 대해서도 함께 개최된 것이다.

이날 정년식에서는 각 교수들의 약력소개와 훈장, 포상 및 표창장 전수식이 함께 열렸다. 최송화 교수는 교육인적 자원부장관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공로패 및 기념품의 전달식이 있었다. 이후 이장무 총장의 송별사와 사범대학 안희수 교수의 대표인사가 이어졌으며, 간단한 사진촬영 후

이러한 도서자료는 동문에게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주산홀에서 기념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에 교수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영화배우 박중훈의 사회로 진행된 우정의 시간을 가졌으며, 가수 임지훈이 초대되어 노래를 하기도 했다.

8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후기 학위수여식이 있었다. 호문혁 법대학장, 정종섭 교무담당부학장, 이원우 학생담당부학장 등 많은 교수들과 졸업생들이 참석한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77명, 석사 14명, 박사 9명이 학위를 받았다. 특히 02학번 이새롬 학생은 최우수 졸업의 영예를 안고 학사 대표로 졸업생 인사를 하였다. 이번 졸업생들은 지난 겨울에 졸업한 학생들과 함께 06년도 졸업생이 된다.

2006학년도 법과대학 04 후기 학위수여식



학장단 주최 동아리 05 학생회 회장 모임



지난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12시에 동원관 3층에서 법과대학 동아리와 학생회 회장들의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은 친목도모의 목적으로 학장단이 주최해왔으며, 호문혁 교수님, 정종섭 교수님, 이원우 교수님 세 분 모두가 참석하였다. 이번 모임에서는 학생회 대표, 다숨, ALSA, 법대 신문사, 법대 연극사단, 질풍, 평지, 베루카, 트리플 H, 법대 배드민턴부, 법대 불교회, 산악회, 사법학회, 경제법학회, 법철학회 등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은 동아리의 활성화 및 법대 학생들의 활발하고 건강한 참여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얼마 전 법대에 있었던 침통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동아리 간부들의 고민들을 들어보며 아울러 법대 학생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학장단은 작년 본교 공대에서 실시된 심리검사의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송별오찬이 이어졌다.

이번에 퇴임한 최송화 교수는 1941년 6월 27일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나온 후 1974년에 법과대학에 조교수로 취임하여 오늘까지 30여년간 봉직해왔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부총장, 교수평의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행정법이론실무학회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행정법1, 독일행정법, 법치행정과 공익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한국에 있어서 민영화, 규제완화와 행정법, 판례에 있어서의 공익 등 최근의 것들을 비롯하여 행정소송, 공익개념 등에 관한 다수의 것들이 있다.

법대 82학번

홈커밍데이

03



지난 2006년 11월 4일(토) 오후 4시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82학번(제40회)의 졸업 20주년 기념 모교방문 행사가 있었다.

법대 82학번은 총 362명이 입학하였으며 현재 352명이 사회에 진출해있다. 본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로는 이근관 교수, 이원우 교수, 조국 교수, 조홍식 교수가 있다.

먼저 법대 앞 정의의 종에서 타종식이 있었으며, 이어서 주산홀에서 기념식이 있었다. 이원우 부학장이 이번 행사의 사회를 보았으며, 재치 있는 진행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양영태 82학번 동기회장의 인사와 박교선 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모교 발전기금이 전달되었다. 82학번 동기들의 열성적인 참여로 전례에 없이 1억 1190만 원을 모아, 동기회가 친목도모뿐만 아니라 모교를 위하는 동기회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들었다. 호문혁 학장은 축사에서 국립대이더라도 국가의 지원만으로 예산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학교에 대한 적극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쾌거이기에 더욱 값진 노력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원래 법대 발전기금은 용도가 한정되어 주로 국비 지원이 부족한 곳에 충당되어 도서 구입 및 건물 증개축, 환경개선, 교수들의 학술회의에 이용되어왔다. 그러나 학장의 축사에서 이제는 서울 법대의 국제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수와 학생들의 외국대학과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며, 살아있는 공부를 위해 딱딱한 법조문을 공부해 온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도 마련하는 데에 기금이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아울러 공부할 법률문헌 및 자료 확보에도 노력을 하며

결과 1/3이 비정상적으로 나온 결과를 언급하며, 특히 법이라는 보수적이고 규범적인 학문을 공부하면서도 그와 대조되는 시대정신 사이에서 고민하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법대 학생들의 심리상태가 매우 우려된다고 하였다. 이런 취지에서 법대에서도 심리검사를 실시해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장단은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구멍을 만들기 위해 대화의 공간을 확보하고, 무엇보다도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동아리 활동은 공부만큼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그 가입 자체도 기피하고, 가입 후에도 일을 기피하는 경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리고 동아리들 역시도 변화된 시대에 발을 맞추지 못하여 학생들의 열정과 욕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반성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동아리 및 학생회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인적인 정치의식을 표현하는 회장이 아니라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입장에서 간부들의 활동을 당부하였다. 특히 동아리를 사적인 취미를 함께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학교의 시설을 사용하고 지원금도 받는 만큼 의사결정과정에도 참가하며, 그의 공적인 역할도 충실히 하여 학생들의 소외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 동아리 및 학생회 대표들은 일을 배우는 시기인 1학년에서 일을 주도하고 가르칠 중요한 시기가 되는 2학년 사이에 동아리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아 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법대 특성상 보통 2학년부턴 법대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시기가 서로 엇갈리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재정적인 지원은 학생회로부터 받기도 하며, 본부에서 나오기도 하나 정보부족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동아리도 있어 아쉬움을 샀다.

전반적으로,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인간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친구들과 의

사소통할 기회를 통해 시야를 넓히며, 학우들끼리 더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며 논의가 진행되었다.

법대 전체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우선, 지금 학생들의 주된 활동이 학회단위로 뿔뿔이 흩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학교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동아리나 지도반 모임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학회에도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학회와 학교의 지원체계를 일치 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마다 유동적인 교수의 수로 행정적인 어려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방법이든 법대 전과생과 편입생도 학회단위로 아울러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동창회를 이용하여 사회각계의 선배들이 mentor 식으로 학생 2~3명을 담당하는 식으로 말하는 방식도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mentor 형식을 지도반 모임과 연계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동아리 연합 모임을 통해 좀 더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교환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도 이끌어내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여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체육대회의 성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학생회가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교수들이 전원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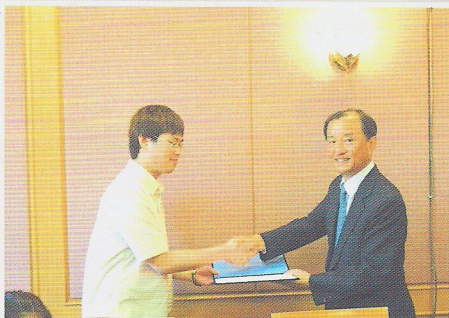
석하도록 하여 참여를 유도하자는 계획도 구성되었다. 지난 1학기 대동제 때 노래자랑과 생맥주파티에 교수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 시도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호평을 받았다.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정기적인 방법으로는 새터 때 교수들도 모두 참석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시작이나 끝날 때에 의례적으로 있어 온 인사말로 그치지 않고, 학생들과의 실속 있는 만남을 주선하여 대화를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오는 11월 2일 안대희 대법관의 강연을 시작으로 학장단이 격주제로 계획하고 있는 법대 선배의 초청강연도 논의되었다. 당장 법대학생들의 큰 관심사인 진로 고민에 도움을 주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취지이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오간 점심모임은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되었다.

우수장학생 시상식

06



지난 10월 11일 수요일 동원관 3층 회의실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적우수자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호문혁 법대학장과 정종섭 교무부학장, 이원우 학생부학장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에 성적우수자 장학금을 받은 13명 중에 1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를 하고 나서 점심식사를 했다.

성적우수장학생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매 학기마다 평가하는 전체학기 성적 합산의 평균평점이 3.6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과에서 학점이 높은 순서대로 받는다. 올해는 법대에서 13명을 뽑았으며, 이들은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이러한 우등장학금은 학사과정에 한하고 이중수혜금지적용의 예외를 받아 동시에 타장학금의 수혜가 가능하다.

이번 성적우수자 장학생은 이수현(02), 최승훈(03), 김동원(03), 김웅재(03), 민수연(03), 이하윤(03), 조형목(03), 전성환(04), 한지웅(04), 남혜영(04), 서민지(04), 이유진(04), 이재철(04)이다.

법대 졸업사진 촬영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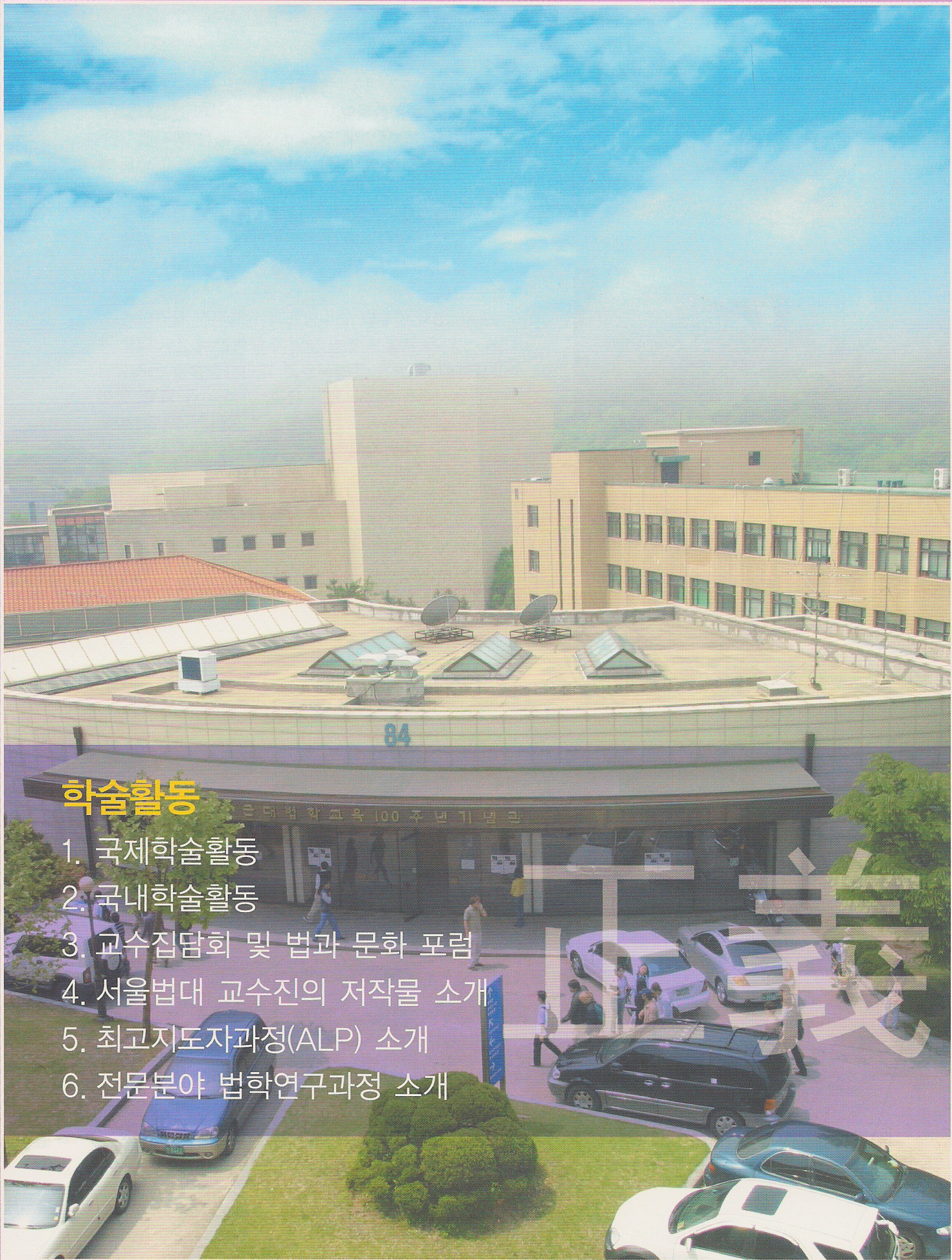


9월 15일 오전 10시 반부터 법학도서관 앞, 문화관 앞, 두레문예관 등지에서 졸업사진 촬영이 진행되었다.

2007년 졸업앨범에 담길 사진을 찍는 행사였지만, 실제 사진촬영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2007년도 졸업예정자들은 아니었다. 법대의 경우 4학년들이 관례적으로 사진을 찍게 되고, 이에 이번에 졸업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대다수가 03학번이었다. 단과대학별로 관례가 달라서 실제 졸업예정자들만 사진을 찍는 단과대학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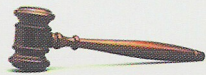
오전 10시 반부터 교수님들과 단체사진 촬영이 있었고, 그 다음 조별로 조별 촬영에 들어간 후 순서대로 개인사진을 찍었다. 조별촬영과 개인사진촬영 중간중간에 졸업사진을 찍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각 학회, 동아리별로 선후배들이 모여서 정광과 정의의 중 앞, 법도 앞 잔디밭, 감골 등지에서 사진을 찍어 법대 전체가 축제분위기였다.





학술활동

1. 국제학술활동
2. 국내학술활동
3. 교수집담회 및 법과 문화 포럼
4. 서울법대 교수진의 저작물 소개
5. 최고지도자과정(ALP) 소개
6.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국제 학술활동

2006년도 국제 컨퍼런스 "Patent Litigation: U.S. and Korean Perspectives"



지난 9월 15일(금) 르네상스 호텔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센터의 주최로 2006년도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Patent Litigation: U.S. and Korean Perspectives"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Townsend and Townsend and Crew LLP., 법무법인 율촌, 전자신문 등의 후원을 받았다.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인 정상조 교수가 사회를 보았으며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과 전상우 특허청장이 축사를 전했다.

Session 1: Licensing and assertions에서는 정영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Korean practices of licensing and assertions' 라는 주제로, Richard Ogawa (Partner, Palo Alto Office)가 'U.S. practices of licensing and assertions'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Session 2: Doctrine of equivalence에서는 최성준 부장판사(특허법원)가 'Doctrine of equivalence in Korean courts', Thomas F. Fitzpatrick (Partner, Palo Alto Office)가 'Doctrine of equivalence in the U.S. courts'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자리를 빛냈다.

Session 3: Litigations before the U.S. courts에서 발표한 Steve Cho (Partner, Palo Alto Office)는 'Notice requirement and responding to notice letters' 라는 주제로, 조영선 판사(특허법원)로 'Patent litigation practice from a Korean perspective' 에 대하여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Session 4: ITC proceedings에서는 Bill Bohler (Partner, Palo Alto Office)가 'How does a foreign national conduct itself in front of the ITC' 에 대하여 발표하고 김대원 교수(서울시립대)가 'ITC proceedings from a Korean perspective' 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컨퍼런스는 한국어와 영어의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매 Session마다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컨퍼런스를 마친 후 만찬에 참석하여 친목을 다졌다.

Foreign Authority Forum-국제형사재판소의 현재와 미래

10월 19일 11시 50분부터 17동 서암홀에서 제94회 Foreign Authority Forum이 열렸다. 법대 BK21 사업단주최로 열린 이번 포럼의 강연자는 Judge Maureen Harding Clark (ICC 재판관, 아일랜드 출신)로 '국제형사재판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Clark 재판관은 아일랜드에서 법을 공부하고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2003년 2월 송상현교수와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CC)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대량학살죄,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하는 국제 재판소로 유엔과 독립된 별도 기관이며 현재 18명의 재판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 이어 네번째이다. 재판관들은 16일 대법원에서 열린 심포지엄 '형사사법제도의 미래를 위한 협력'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노무현대통령을 예방하였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송상현 교수(ICC재판관)의 Clark 재판관이 있었다. 이번 포럼에는 서암홀의 좌석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참석하여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루빈교수강연



지난 10월 27일(금) 오후 1시 반에 17동 서암홀에서 미국 Vanderbilt Law School의 Edward Rubin 학장의 강연이 있었다. '미국의 법학교육'을 주제로 한 본 강연에서는 미국의 일반적인 법학교육을 개괄하고 변화하는 미국의 법학교육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고 Vanderbilt Law School의 LL.M. 과정을 소개하였다. 최종고 교수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본 강연은 우리나라의 로스쿨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의 로스쿨 제도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Rubin교수는 미국 내에서 미국의 법학교육의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Rubin교수는 Yale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폭넓은 주제를 다룬 다수의 저작이 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에서 행정법과 상법을 가르쳤으며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05년 7월 Vanderbilt Law School의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국내 학술활동

晴潭 崔松和 教授님 정년기념 법학연구소학술회의

9월 4일(월) 오후 2시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청담 최송화 교수 정년 기념 학술회의가 열렸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는 35여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재직하였던 청담 최송화 교수가 지난 8월로 정년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학술회의는 최송화 교수가 다년간의 행정법학 연구과정에서 주력해 온 주제인 '법에 있어서의 공익'을 주제로 현직 교수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인 정인섭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장무 서울대학교 총장과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이 축사를 맡았다.

최송화 교수는 '공익의 법문제화'라는 주제의 기조발제에서 공동체적 가치개념으로서의 공익을 설명하며 행정입법과 사법의 각 영역에서 공익과 관련된 법적 문제의 기본방향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서울대 법대 정중섭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부에서 경희대 법대 박균성 교수, 이화여대 법대 김유환 교수, 서울대 법대 이원우 교수가 발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와 명지대 법대 김광수 교수가 참여하였다.

이어진 제2부는 서울대 법대 윤진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한양대 법대 제철웅 교수, 서울대 법대 김도균 교수가 발표하였으며 서울대 법대의 김형석 교수, 송석운 교수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학술회의를 마친 후 참가한 교수진과 내빈들은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초청 만찬에 참가하며 친목을 다졌다.



민사소송법학회 학술회의



9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2006년도 하계 한국민사소송법학회(회장 호문혁 교수)의 정기학술대회가 열렸다. 주제는 <통합도산법의 시행과 그 문제점>이었다.

제1세션에서는 홍기문 교수(전남대)의 사회로 김용철 판사가 <개인회생제도의 현황>을, 석광현 교수(한양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도산법>을 발표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임치용 부장판사의 사회로 김관기 교수(서강대)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 김경욱 교수(영남대)의 <중재당사자의 파산이 중재절차에 미치는 영향 - 국내 중재 · 파산절차에 한정하여> 발표가 있었다.

특히 김용철 판사는 <개인회생제도의 현황>발표에서 통합도산법 시행이후 개인파산 신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를 앞지른 점을 지적하였으며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연구를 촉구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10월 20일 10시부터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로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모색>이라는 제하의 학술회의가 열렸다. 이번 학술회의는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60년을 돌아보기보다는 한국법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법학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학술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한자리에 모이기 힘들었던 전국 각지의 법대교수들이 모여 법학교육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법학연구소는 이번 학술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이런 자리

를 마련할 계획이다. 호문혁 법대학장도 개회식에서 이와 같은 확대된 형태의 학술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서울법대의 적극적 지원입장을 밝혔다.

개회식에 이어 안경환 교수의 기조강연이 있었다. 제목은 '21세기 한국 법학교육의 지향목표'였다. 안경환 교수는 법이 다른 분야에 비해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긴 하지만 사회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21세기의 법학교육은 통합성, 다양성, 국제무대를 유념한 교육, 전문성, 자율성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본격적인 학술회의는 제1회의가 오전에, 제2,3회의가 오후에 열렸고 이후 만찬을 가졌다. 구체적인 발표내용과 토론자는 다음과 같다.

제1회의

사회: 남효순(서울대 법대)

1. 법학대학원의 운영방안/ 김종철(연세대 법대)

토론: 박종보(한양대 법대), 이재협(경희대 법대), 이우영(서울대 법대)

2. 법학대학원에서의 바람직한 교수방법/ 오수근(이화여대 법대)

토론: 임지봉(서강대 법대), 문재완(외국어대 법대), 조홍식(서울대 법대)

제2회의

사회: 이광택(국민대 법대)

3.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방안/ 최병조(서울대 법대)

토론: 김창록(경북대 법대), 최봉철(성균관대 법대), 이재승(전남대 법대)

4. 대학 학부에서의 법학교육/ 이상수(한남대 법대)

토론: 도희근(울산대 법대), 김홍영(충남대 법대), 송기춘(전북대 법대)



제3회의

사회: 양창수(서울대 법대)

5. 법학교육에서의 실무교육방안/ 김영철(건국대 법대)

토론: 김승대(부산대 법대), 심인숙(중앙대 법대), 남형두(연세대 법대)

6. 법학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 김기창(고려대 법대)

토론: 백진현(서울대 국제대학원), 노정호(연세대 법대), 조국(서울대 법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주최 특별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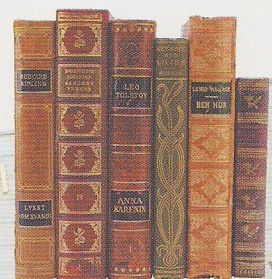


2006년 11월 21일(화), 황건호 한국증권업회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한국 자본시장 및 증권산업의 중요성과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주최)을 가졌다. 이 강연에서 황건호 한국증권업회장은 "자본시장통합법 마련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도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연 내내 진지한 분위기가 유지된 이날 강의에서, 황건호 한국증권업회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의 필연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지향하는 자본시장의 모습은 프리마켓, 페어마켓, 글로벌마켓"이라고 강연했다. 그는 이어 "규제의 혁신적 개편, 혁신산업

의 자금조달원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자산운용의 장(場) 마련, 은행과 자본시장간 균형발전, 동북아 금융허브 및 선진형 금융시스템을 위한 인프라 정비,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이 자본시장통합법의 탄생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다양한 구조의 신상품이 출현하고, 투자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호주, 영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도 이미 자본시장의 패러다임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한국 자본시장은 소신, 창의성,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구비한 많은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가치관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





교수집담회 및 법과 문화 포럼

법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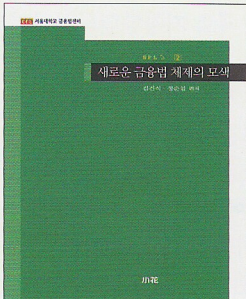
에서는 매주 한 가지씩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교수집담회나 '법과 문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법과대학의 교수나 기타 단과대 교수, 일반 사회인사들이 발표를 맡는다. 심도 있고 격의 없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본 자리에서 각 법학분야는 물론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추구하고 상호협력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분류	주 제	발 표 자	일 시
116회 '법과 문화' 포럼	한국 50년 현대사 속 법과 법률가	이창희 교수	9월 13일
117회 '법과 문화' 포럼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들(중증, 교회분열, 성전환)을 읽고	양창수 교수	9월 20일
Foreign Authority Forum & 118회 '법과 문화' 포럼	The Nature of Man as a Challenge to Right	Prof. Kurt Seelmann (스위스 바젤 대학)	9월 27일
119회 '법과 문화' 포럼	누가 한국의 대표적 법률가와 법학자인가?	최종고 교수	10월 11일
120회 '법과 문화' 포럼	법률해석의 한계와 위헌법률심사	윤진수 교수	10월 18일
법의 지배 포럼 & 121회 '법과 문화' 포럼	입법과정과 법률의 민주적 정당성	이우영 교수	10월 25일
122회 '법과 문화' 포럼	환경법 집행부재의 병리학	조홍식 교수	11월 1일
123회 '법과 문화' 포럼	동북아 우주협력 가능성 모색	이상면 교수	11월 8일
법의 지배 포럼 & 124회 '법과 문화' 포럼	Transitional Justice in Korea: Legally Coping with Past Wrongs After Democratization	조국 교수	11월 15일
125회 '법과 문화' 포럼	서민호 사건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신동운 교수	11월 22일



김건식, 정순섭 편저 / 『새로운 금융법 체제의 모색 (신국판) /380쪽』

도서출판 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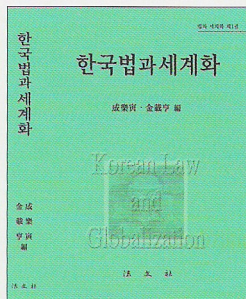


금융규제의 통합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책은 현실과 논리의 양면 중에서 논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논리 중에서도 경제논리보다는 법 논리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규제의 통합을 조명한다.

금융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의 효율적 구조조정 방법 등을 모색하며 나아가 자본시장통합법의 구조와 내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성낙인, 김재형 편 / 『한국법과 세계화』

법문사, 2006. 8.



이 책은 2005년 10월 2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개최한 『한국법과 세계화(Korean Law and Globalization)』 국제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글을 모은 것이다. 심포지움에서는 세계화 문제와 한국법 고유의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고, 한국법을 세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김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한국법의 고유한 모습과 전통을 찾고, 한국법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활동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장은 한국법의 세계화, 제2장은 세계 속의 한국법, 제3장은 법과 세계화를 주제로 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정상조 · 김재형 · 조정욱 / 『한글인터넷주소의 법과 경제』

서울대 기술과 법센터



도메인 이름 분쟁이 속출하고 한글인터넷주소의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주소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은 한글인터넷주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글인터넷주소의 제반문제를 법적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점검해보고 보다 나은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인섭/『새로운 증언과 자료를 통해서 본 거창사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6회 거창사건 학술발표회

새로운 증언과 자료를 통해서
본 거창사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행사주최: (사)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후 원: 경상남도·거창군
실 무: 거창사건 관리사업소
일 사: 2006. 11. 22(수) 10:00~13:00
장 소: 창원시 컨벤션센터 3층 301호실

한인섭교수는 <새로운 증언과 자료를 통해서 본 거창사건>이라는 주제로 거창양민학살사건에 관한 자료집을 펴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한인섭교수의 주도 아래 2001년부터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고 특별법제정을 위해 노력하며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그간 쌓인 자료를 모아 이미 거창양민학살사건 자료집 1, 2, 3권을 펼쳐낸 바 있다. 이 자료집들은 신문자료, 국회자료, 재판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약 3년간의 작업을 거쳐 올해 11월에 있었던 제6회 학술대회에서는 새롭게 발굴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자료집을 엮어냈다.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한 증언들을 자료집으로 묶어 내어 거창사건의 진상을 보다 생생한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번 자료조사에서는 1951년 당시 거창사건에 관한 외신 보도를, 실제로 미국의 신문들에 보도 것을 찾아서 실을 수 있었다. 자료집은 1월 발간을 목표로 진행중인데, 기 출간된 3권을 포함하여 16권으로 계획하고 있다.



■ 최고지도자과정(ALP) 소개

» 강의 목적

국내 유일의 법과대학 주최 최고지도자과정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과정(ALP: Advanced Law Program)이 어느덧 5기를 맞이했다. 지난 2004년 개설된 최고지도자과정은 우리나라 각계의 최고지도자들이 모여 발전 동력의 법시스템화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지난 2년 동안 경제, 정치, 사회, 법조 등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배출해왔다. 본 과정은 사회지도층에게 사회의 지도이념이 반영된 가치체계로서의 법에 대한 지식과 광대하고 구체적인 시각을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법치주의의 확산을 통하여 원칙과 정의에 기반으로 한 사회체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고지도자 과정은 평소에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상호간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새롭게 시작된 5기 역시 정치, 법조, 기업, 언론,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그 풍성함을 더했다.



서울대학교 최고 지도자과정

지난 2004년 개설된 최고지도자과정은 우리나라 각계의 최고지도자들이 모여 발전 동력의 법시스템화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지난 2년 동안 경제, 정치, 사회, 법조 등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배출해왔다.



» 강의 방식

최고지도자과정에서는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들을 강의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현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법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현안을 직접 다루었던 인사들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접 생동감 있는 논의를 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이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최고지도자를 배출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6개월 동안 총 60여 강좌가 마련되는 최고지도자과정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2강좌씩 진행되는데, 사회 전반의 주요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매번 강의 주제를 달리한다. 수업은 그 강좌 주제에 맞는 법과대학 교수와 전문이론가를 한분씩 초빙하여 이루어지는데, 1강은 타 대학 교수, 사회인, 본교 비법대교수가 강의하며, 2강은 본교 법대교수들이 강의한다. 이러한 교수 구성은 현실과 이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각을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한 정규 법학 강의 이외에 1학기에 1회의 해외특강, 야외특강, 부부특강 등이 있으며, 과정 중간 중간에 수강생들이 서로 단합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마련되어 법과대학의 최고지도자과정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 차원



을 넘어 사회 각계 지도자들의 상호소통을 위한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 학사관리

서울법대 최고지도자과정은 수강생들의 출석현황과 논문제출, 자치회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수강생을 평가하여 수료여부를 심사하며 논문발표회를 마지막으로 6개월간의 과정을 종강하게 되고, 수료시에는 서울대학교총장 명의의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이

후 수강생들에게는 법과대학이나 부속연구소의 각종 세미나 및 포럼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한국사회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내적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표출로 인하여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해야 하고, 외적으로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사회적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을 통해 사회 전반의 여러 현안을 살펴본다는 것은 개인의 인격적 지배나 단기적인 효율추구를 넘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법의 지배에 의한 사회체제의 장기적 효율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서울법대의 명성과 역량에 기반하여 각계 지도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법과 정의에 기초한 사회창조의 비전을 제공하고자 개설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최고지도자 과정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가는 모습이 주목된다.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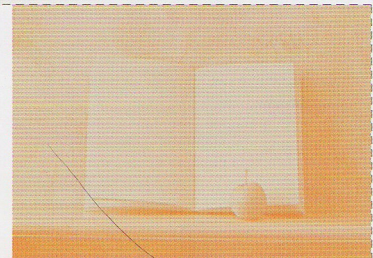
전문분야법학연구과정은 1996년 3월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급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각 분야의 최근 법 이론의 동향과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날도 증대하는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법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1999년 2학기(제8기)부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이 이 과정을 주관하여 한결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연혁은 다음과 같다.

기수	연도/학기	과 정	기수	연도/학기	과 정
1	1996/1	공정거래법	2	1996/2	지적재산권법
3	1997/1	공정거래법	4	1997/2	금융거래법
5	1998/1	조 세 법	6	1998/2	보 험 법
7	1999/1	행정소송·행정법	8	1999/2	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
9	2000/1	공정거래법	10	2000/2	금융거래법
11	2001/1	노 동 법	12	2001/2	인터넷과 법률
13	2002/1	공정거래법	14	2002/2	기업의 경쟁·도산과 법
15	2003/1	전략적 기업경영의 법률과 세무	16	2003/2	국제통상법·정책과 실무
17	2004/1	공정거래법	18	2004/2	조 세 법
19	2005/1	인터넷과 법률 II	20	2005/2	통합도산법
21	2006/1	공정거래법과 규제산업	22	2006/2	M&A의 이론과 실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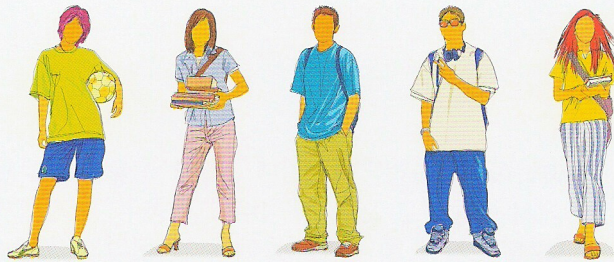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제22기『M&A의 이론과 실무』

전문분야법학과정 제22기는 「M&A의 이론과 실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김건식 교수와 김화진 교수가 주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9월 4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법대 17동 서암홀에서 2교시로 나누어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12월 21일에 주임교수의 특강과 함께 수료식이 있을 예정이다.



학생활동



SNU Law Magazine

법대학술제

09. 11 학술제 개막식



지난 2006년 9월 11일 두시 법대 정의의종 앞에서 법과대학 모의재판 학술제 개막식이 있었다.

올해 학술제는 11일 (월)에 형사법학회, 12일(화)에 민사사법학회, 13일(수)에 국제법학회, 14일(목)에 경제법학회 순서로 나흘간 열린다. 각 학회마다 해당 과목 교수들이 출제하거나 자체적으로 만든 사안을 가지고 여름방학 동안 모의 재판을 준비해왔으며, 실제 법원의 판사들 및 관련 실무가들을 섭외하여 판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막식은 사법학회장 이우주(04) 학생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호문혁 학장의 축사로 시작되어 각 학회장들의 인사에 이어 정의의종 타종식이 있었다. 호문혁 학장, 이원우 부학장, 정종섭 부학장, 신동운 형사법학회 지도교수, 한인섭 교수 등 많은 교수들과 형사법학회 모의재판부 판사들, 그리고 각 학회장들 및 구경 하던 학생들 중에서 희망자들이 타종에 참여하였다.

● 09. 11 형사법학회 모의재판

지난 2006년 9월 11일 두시반에 법대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형사법학회의 모의재판이 열렸다. 올해로 제 48회째를 맞이하는 형사모의재판은 모당대표의 피습사건(지충호 씨 사건)에서 소재를 얻어 만들어진 사안으로 진행되었다.

재판부는 우광택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나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검사는 주민호(04), 구해성(04), 최광진(04) 학생이, 변호인은 이경진(04), 강혜림(04), 유제민(04) 학생이 열연했으며, 이밖에 증인으로는 공혜원(05), 강화연(06), 이기은(05), 김상현(05), 김정식(05), 이현주(05) 학생이 흥미를 돋워주었다.

형사모의재판의 특징은 배심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원래 형사법학회에서는 영미식 배심재판의 형태를 취했다가 93년부터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판절차의 모델에 따랐었다. 그러나 2년전부터 다시 배심제를 도입했다. 최근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영향을 받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형 배심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시간상의 제약으로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만장일치나 다수결의 형식 대신에 배심원 9명 중에서 6명이상의 유무죄 평결을 따르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배심제의 평의과정은 흥미를 위해 공개했으며, 양형판단은 재판부에 전달시켰다. (원래 한국형 배심제에서는 배심원들이 양형에도 관여를 하며, 피고인신문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다른 특이한 사항은 실제법정에서처럼 피고인석이 판사석의 맞은 편에 있지 않고 검사석의 맞은 편에 있어, 무기대등주의 원칙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당대표 피습사건' 소개하자면, 고려당 선거 유세장에서 술에 취한 천세주가 술병을 들고 고려당 당대표에게 소리를 질러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사이, 근처의 금치산이 당대표의 얼굴에 문구용 커터칼을 휘둘러 뺨에 길이 11cm, 깊이 1~3cm의 자상을 입힌다. 이후 언론에 보도가 되자 제갈봉변의 회사 여직원은 천세주, 금치산, 그리고 제갈봉변이 함께 있었던 사실을 수상히 여겨 신고한다. 수사결과 제갈봉변이 그 둘에게 거액을 송금하였음이 밝혀진다.

검사는 제갈봉변을 살인미수의 교사범으로, 천세주는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으로, 금치산은 주위적 청구로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을, 예비적으로는 상해죄로 기소했다.

배심제의 평의결과 제갈봉변과 천세주는 무죄, 금치산은 살해죄 유죄로 평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재판부 역시 제갈봉변과 천세주는 무죄, 금치산은 살해죄로 징역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 판사들은 다들 열심히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으나 실무와 다른 옥의 티로는 선서보다 증인인정신문이 먼저 나온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사자는 처벌되지 않고 실행자만 처벌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실무에서는 교사와 예비는 특별한 경우에만 청구하고 보통 공동정범으로 기소한다고 했다. 제갈봉변이 살인의 교사범으로 무죄일 것에 대비하여 상해교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덧붙여야 했을 것도 아울러 지적했다.

주산홀은 형사법학회 모의재판을 구경하러온 학생들로 가득 메워져서 학생들이 열띤 관심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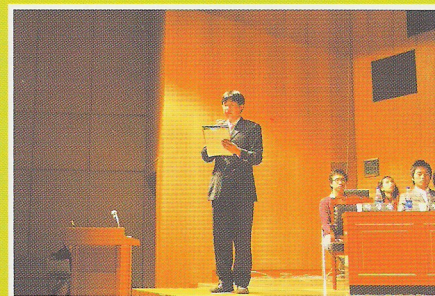


● 09. 12 사법학회 모의재판

법대 학술제 둘째 날인 9월 12일 법대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은밀한 시선 : 보험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사진촬영, 사생활 침해인가...〉라는 제하의 제39회 민사모의재판이 열렸다. 이번 모의재판문제는 양창수 교수가 출제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의 김명수 부장판사, 양진수판사, 정은영판사, 김춘화예비판사가 학생들의 지도와 재판을 맡았다.

사안에서는 보험회사의 직원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이 문제되었는데, 원고측(교통사고 피해자와 우연히 사진에 찍힌 사람)은 승낙없이 함부로 그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그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 측에선 사안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은 비밀로 하겠다는 의도가 없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수소법원에 제출한 것도 공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동의 없이 촬영한 것과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증거제출을 위한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기는 점점 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감시 역시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도 유사한 것이었다. 사생활 침해와 위법성의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였다



● 09. 13 국제법학회 모의재판

2006 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술제의 세 번째 순서로, 지난 9월 13일 3시에 법대 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국제법학회의 모의재판이 열렸다. 올해로 제39회를 맞은 모의국제사법재판에서는 사이버테러와 자위권 행사를 주제로 하여 가상의 국가인 Abri국과 United States of Dominance국이 당사자로 참가한 ICJ 재판을 다루었다.

흔히 테러라고 하면 항공기나 폭탄과 같은 현실적, 물리적 공격을 수단으로 하는 테러를 떠올리기 쉬운데, 이번 국제법학회 모의재판에서는 빠른 시대 변화와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여 컴퓨터 해킹을 이용한 사이버테러를 주제로 하였다. 전례없는 새로운 형태인 사이버테러가 자위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아직 판례나 학설이 손을 뻗치지 못한 사례로, 학설상 논의되고 있는 예방적 자위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숭실대학교 서철원 교수가 출제한 이번 사안은 알 카에다의 9.11테러 사건을 변형한 것이다. 사안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단체인 Al Museopzi는 컴퓨터 해킹을 통해 USD국의 전기 공급을 3일간 중단시켰으며, USD국이 외교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시에는 핵 시설과 같은 위험시설에 대한 해킹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USD국은 Al Museopzi를 지원하고 Al Museopzi 요원들의 신병 인도를 거부한 Abri국에 대해 자위권을 이유로 Abri국 정부요인을 교체하기 위해 Abri 국내의 반군을 지원하고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무력 공격을 감행하였다. 본 사건의 주요쟁점은 PCIJ의 선택적 관할을 수락하였으나 ICJ 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은 수락하지 않은 USD국에 대한 ICJ의 관할권 인정 여부, 사이버테러에 대한 예방적 자위권 인정 여부, USD의 무력 공격과 Abri국내 반군에 대한 지원의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위반여부였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ICJ의 관할권이 인정되며, 사이버테러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예방적 자위권이 인정되지만, USD국의 무력행사는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자위권의 행사가 될 수 없고 Abri국의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에도 해당한다며 Abri국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판결과 함께 Abri국에게 Al Museopzi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해킹공격의 범인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붙였다.

원고인 Abri국의 외무부장관인 Agent는 유승진, 법률자문인 Advocate은 이재희, 동국 법원 판사인 Counsel은 이동민이 맡았으며, USD국의 Agent는 이정환, Advocate은 임병재, Counsel은 이지성(이상 04)이 맡아 열연하였다.

ICJ의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15인이지만 이번 모의재판에서는 편의상 President 이상원(88), Vice 김도형(94), Judge 이형근(95), 천현진(98), 허영(01)등 5인으로 재판부를 구성하였다.



● 09. 14 경제법학회 모의재판

9월 14일 오후 2시 반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경제법학회의 주최로 제 10회 모의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경제법학회 지도교수인 장승화 교수는 인사말에서 10년 전 법과대학에서 최초로 시작한 모의공정거래위원회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전부터 전국 모의공정거래위원회 심판경연대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제법학회가 4년 연속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독점규제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법과대학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했다.

이승호 경제법학회장은 DMB 휴대폰을 구입하려는 과정에서 소비자로서의 선택권에 제한을 느꼈던 학회원의 사례를 계기로 사안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DMB시장에서의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주제로 한 이번 모의공정거래위원회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휴대폰 이동통신 시장에서 SJ텔레콤이 시장점유율 55%로 1위의 지위를 점하고 KOF가 32%, GG텔레콤이 1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휴대폰 방송 서비스는 지상파 DMB 방송과 위성 DMB방송으로 양분되어 있다. 위성 DMB 사업자는 SJ텔레콤의 자회사인 NU미디어가 유일하며 지상파 DMB 사업자로는 다수의 방송국이 있다.

이 가운데 SJ텔레콤과 KOF가 지상파 DMB 휴대폰 출시를 공동으로 거부하고, NU미디어가 듀얼 DMB 휴대폰 인증을





거부하여 휴대폰 제조사들이 지상파 DMB 휴대폰 개발을 주저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이동통신사들이 지상파 DMB 휴대폰을 거부한 시점 전후에 SJ텔레콤과 KOF의 간부들이 수차례 식사, 골프모임을 가졌다는 사정이 있다.

쟁점이 된 것은 SJ텔레콤과 KOF 간에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NU미디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이에 휴대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들의 기기회사들에 대한 부당한 횡포와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였는지 하는 점이었다.

정경택 변호사 (법무법인 김&장), 오금석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권희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가 위원단으로 참여하였으며 이승호, 소현지, 김우재가 심사관을 맡았다. 피심인 측에서는 김지현, 장진우, 김재남이 사업체 대표로, 박재인, 김희진, 강보미, 정직한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였다.

위원단은 심결에서 부당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추정조항이 아닌 직접증거에 의해 합의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한 후, 사안에 대하여 의심은 가지만 직접증거의 부족을 들어 무혐의 판단하였다. 다만 각각의 거래거래행위는 위법함을 인정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의 존부와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심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006년 법과대학 학술제 마지막 날에 열린 이번 모의공정거래위원회에는 예년보다 많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참관하여 자리를 빛냈다. 파워포인트 등 기기사용의 미숙으로 초반에 다소 진행이 지체되었으나 사회자가 식순을 변경하는 순발력을 발휘하였으며 적절한 다과의 제공도 큰 호응을 얻었다.

● 09. 14 학술제 폐막식

9월 14일 오후 6시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앞 광장에서 2006년 법과대학 학술제의 종결을 기념하는 폐막식이 개최되었다.

4일간의 학술제 기간 동안 각각 모의재판과 모의공정거래위원회를 성황리에 마친 형사법학회, 사법학회, 국제법학회, 경제법학회의 학회원들과 법과대학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술제의 성공을 자축하였다.

법과대학 학장 호문혁 교수와 성낙인 교수, 부학장 이원우 교수가 축하하고 격려하였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공법학회의 창설을 기대한다는 바람도 빠짐없이 전하였다.

이어진 만찬에서는 법과대학 학생들이 예년보다도 높은 참여율과 긍정적인 호응을 보여 내년 학술제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남기에 충분하였다.



● 법사회학회 모의재판 - 공무원노조법



9월 28일 오후 6시에 근대법학교육백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법사회학회의 주최로 모의헌법재판이 개최되었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은 모의헌법재판은 공무원노조특별법 제 10조, 11조, 18조의 위헌성에 대해 다루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의 소방 공무원 마빡이와 동료들은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일하고 있었다. 법에 보장된 근무교대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매일 일에 쫓겨 살던 도중 마빡이가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열빡이를 중심으로 한 다른 동료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집단쟁의행위에 들어간다. 단식투쟁과 파업으로 정

부에 대항하던 중 주모자인 열빡이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제11조 쟁의행위 금지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열빡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제10조, 11조, 18조의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하게 되나 각각당하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 10조 1항, 2항은 국가적 정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 합헌결정을, 11조는 최소침해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18조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단순위헌결정을 내렸다.

법사회학회의 모의헌법재판은 여타의 다른 법학회들의 모의재판과는 많이 다르다. 법학회들의 모의재판은 대본을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법적 쟁점을 면밀히 파고들어 논쟁을 벌이는 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여 공판에서 그 모두를 꺼내놓은 뒤 최종판결은 초빙한 외부인사들에게 맡기는 형태라면, 법사회학회의 모의헌법재판은 헌법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판단과정을 중요시하고 관객이 흥미를 끌 수 있게 코믹한 요소들을 많이 배치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판결을 동아리 내부적으로 내놓은 채 모의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에 어느 방법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법적 쟁점을 예리하게 파고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조문에 갇히지 않으려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부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보지 않기에 관객의 흥미를 끄는 것 역시 중요하다. 다만 무리한 개그의 선정이나 준비의 부족으로 인한 학예회스러운 것은 더 많은 관객들을 유치하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한 듯하다. 더 많은 법대 학우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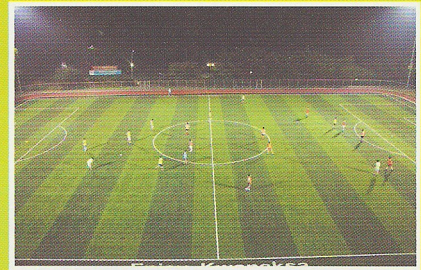
SNU Law Magazine

법대 학생배 축구대회

제5회 법대 학장배 축구대회가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기숙사운동장에서 열렸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축구부(약칭 법축)의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남자부 15개팀과 여자부 3개팀이 참여하였으며, 남자부는 15개 팀이 예선 리그전과 본선토너먼트전으로, 여자부는 3개팀이 승부차기 리그전으로 진행되었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남자부의 생맥주팀 대 법농팀의 결승전과 오감도팀 대 FC열린창팀의 3~4위전이 열렸으며, 여자부 승부차기도 이 날 진행되었다. 여자부는 누리사랑과 FC열린창, 맥박 팀이 출전하였으며, 누리사랑팀이 우승을, FC 열린창팀과 맥박팀이 치열한 접전과 연장전 끝에 공동 2위를 차지하였다. 남자부는 생맥주팀이 우승을, 법농 팀이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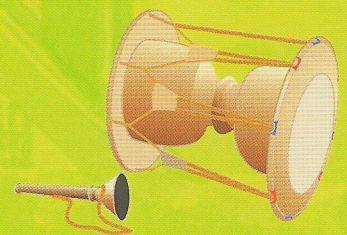
법대 풍물패 질풍의 가을공연

SNU Law Magazine



법대 풍물패 질풍의 2006년 가을공연이 지난 9월 28일 서울대학교 노천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질풍은 관악에서 유일하게 진안 중평굿을 치는 풍물패로, 이번 가을공연은 지난 두달간 갈고닦은 기량과 열정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였다.

오후 5시 반에 시작된 이번 공연의 제목은 '위 룡기 엇더하니잇고'이며, 질풍의 제 13회 가을공연이다. 정의의 광장에서 시작하여 노천강당에 이르기까지 길놀이를 한 후, 노천강당에서 본격적으로 고사를 지내고 창작판을 벌린 뒤 진안 중평굿으로 마무리하였다. 이후 준비된 막걸리와 안주를 먹고 마시며 관객들과 함께 뒷풀이를 즐겼다.





동문인터뷰

1. 목영준 헌법재판관
2. 이재후 신임동창회장

正義



목영준 헌법재판관

1977 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78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목영준 재판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과 미국 Harvard Law School을 졸업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03년에는 대법원장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 이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및 차장직을 거친 바 있다. 2006년부터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재판관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지난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다.

동문 인터뷰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11월 10일(금)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목영준 헌법재판관을 만났다. 재판관 사무실에서 목영준 재판관은 기자들을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미리 전달한 질문지에 대해 꼼꼼히 답변을 준비하는 세심함을 보여주었다. 인터뷰에는 최용우(00), 이유진(03), 유승진(04) 3명의 기자가 참석하였다.

기자: 우선 헌법재판관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신지 두달 가까이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하신지요?

목영준 재판관(이하 목): 두 가지 정도가 달라진 듯 합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다보니 재판업무에 몇 년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비법률적 업무인 사법행정에 몸담다가 재판업무로 돌아오니 한편 생소하기도 하고, 본자리로 돌아온 듯 편안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경험한 법원의 재판은 주로 분쟁당사자의 구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은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큰 틀에서 하여야 하더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편이 적성에 맞는 듯 해 만족스럽습니다.

기자: 1978년에 법과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재학 당시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참여하신 활동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목: 우리는 이른바 유신세대에 긴급조치 세대예요. 당시는 개강하면 데모하고, 데모하면 휴교하느라 재학 4년 중에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던데다 캠퍼스 출입도 곤란하곤 했습니다.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추억도 미약합니다. 그나

마 형사법학회
 회원으로서
 모 의 재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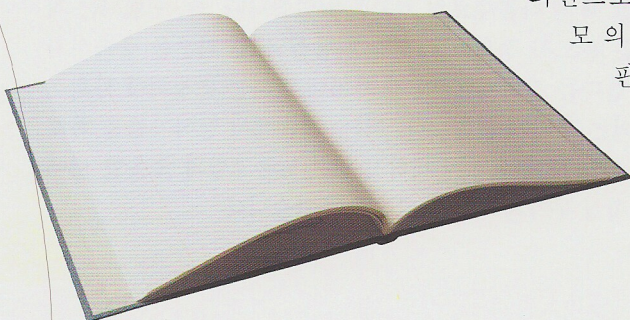
에서 검사역할을 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요즘 학생들도 활동하고 있을텐데, 그 때 두세달 준비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자: 이후의 이력을 보면 재판관님께서서는 초대 대법원 공보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법원 내에서도 출중한 직위를 거쳐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분들 중에서도 젊은 편이신데요, 이렇듯 탁월하게 성공해 오신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 제가 그러한 보직에 많이 있었던 것은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사법행정은 재판과 다른 특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성격을 지녔다고 보여지는 활동적인 사람들이 주로 담당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빨리 된 편이긴 합니다만 전적으로 운의 덕이고, 그밖에도 살아오면서 능력에 비해 운이 매우 좋았던 편입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판사가 되면서부터 공직에 대한 기대를 접은 점일까요. 장차 높은 자리로 가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했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했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위 분들로부터 조금이나마 인정받은 듯 합니다.

기자: 재학시절부터 현재의 법학생들에게도 선망의 대



“

사회적 약자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삶의 출발선상에서부터 불리함을 안고 출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함께 발전하려면 그들이 안은 부담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출발해야 합니다.

”

상이 될만한 경력을 쌓아오셨는데,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소수자들의 입장에 공감하시는데 다소의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목: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저도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었습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순탄하게 주류 내에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지요. 그 동안 제 나름대로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지만, 간접경험이 직접경험과 비교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소수자의 어려움을 공유하기 위하여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자: 사법부 내에서는 합리적인 조정력으로 정평이 나게신 줄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대표로서 언론이나 국회를 상대하시면서나, 사법개혁 작업에서 법원 내부의 의견을 조정하는데 있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정에서도 법원 노조나 국회 양당의 고른 지지를 받으신 줄 압니다. 획기적인 판례들을 추진하시고 사법개혁에 앞장서시면서도 다양한 관계에서의 균형 감각을 유지해 오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목: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 사회와 역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과감하게 깨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질서가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애쓰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요. 사회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하면, 국가나



사회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하여 양보하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 중 저는 선천적 성격 때문인지, 법관이란 직업을 오래 맡았기 때문인지, 사법행정을 오래하다 보니 그런지 이른바 조정자의 역할, 갈등을 수렴하고 화합시키는 역할을 주로 맡아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었습니다. 즉, 수렴되는 지점은 반드시 정의와 사회적 타당성의 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에 반하는 조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재판에서 당사자들을 화해로 이끌 때에나, 사법개혁시에나, 노동조합과 조율할 때에나 항상 두가지 기준을 고수하여 왔습니다.

기자: 주택자금 대출 때 은행약관과 다른 이자율 약정을 했다면 은행이 마음대로 이자율을 올려서는 안된다는 판결 등 새로운 판례를 다수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 저는, 재판을 할 때에도 사회적 타당성과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삶의 출발선상에서부터 불리함을 안고 출발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함께 발전하려면 그들이 안은 부담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고 출발해야 합니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불리한 부분을 보완해 주어야 하지요. 우리가 통상 일률적으로 '장애인'이라 말하지만, 장애의 태양 및 정도에 따라 정말 다양하므로 각자 불리한 부분에 맞추어 보완해 주자는 것이지요. 제가 서민들에게 유리한 몇몇 판례들을 만들었습니다만, 서민들 위주가 아니라 함께 가는 사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학설의 비판을 받거나 일반대중의 비난을 받는 결정도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 필요성으로 인해 재판관 분들이 법리를 양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요.

목: 기본적으로 재판관들의 가치관, 세계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의 중에 견해가 갈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결국 재판관들 중 다수의 견해가 현재의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현재의 결정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제외한 많은 재판관 분들이 훌륭한 경력과 사회경험을 쌓아온 분들이시고 그 가운데 구축된 가치관에 따라 헌법이나 공권력을 해석하실 것입니다.

기자: 말씀대로 헌법재판관의 세계관에 따라 현재의 태도가 크게 좌우되는데, 헌법재판관분들이 사회계층을 골고루 반영하지 못하신다면 현재 결정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위험하지 않을까요.

목: 우리 헌법은 헌법적 결단으로 헌법재판관들의 변호사 자격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법조인 출신들만 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의 해석은 결국 법해석이므로 법률가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온 듯합니다. 일본에서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최고재판소 판사의 경우 2분의 비법률가가 있고, 독일도 약 3분의 1은 비법률가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헌법 개정 단계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기자: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추진하고자 염두에 두신 계획이 있으신지요?

목: 결국 재판을 맡고 있으니 재판으로서 결과물을 창출해야 하겠지요. 갈등보다는 화합을 추구하고, 나무보다는 숲을 보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지향한다는 제 종래의 방향에 변화는 없을 듯 합니다.

기자: 법대학생들을 대신해 질문드리겠습니다만,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재직하셨고 누구보다 사정을 잘 아실 듯 한데, 저학년 학생들이 로스쿨 도입을 믿고 준비해도 괜찮을런지요.

목: 현재 무엇보다도 답답한 부분이지요. 저는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개혁위원 등으로서 법률가의 선발과 양성문제에 관여해왔는데, 지금의 사법시험 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로스쿨 주창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행 사법시험 제도에 의하면 대학진공에 상관없이 국가의 우수한 인력들 모두가 사법시험에 매달려서 대학교육과정의 엉망이 되며, 대학교육이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법과대학 현실을 보면,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이 법과대학에 갈 필요가 없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의 우수한 인력 수만명이 전공분야, 어학능력, 다양한 지식을 뒤로 하고 오직 사법시험 공부만 하다보니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때 다른 길로 전환할 수 있는 퇴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하지요. 비록 로스쿨이 미국 만의 제도이고, 일본에도 얼마 전에는 도

이재후 신임노동창회장



이재후 변호사는 196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를 받은 뒤에 62년부터 65년까지 해군 법무관 생활을 마친 후,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65년부터 79년까지 서울형사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다. 중간에 조지타운 법과대학 국제거래법연구소에 1년간 연구를 하기도 했으며, 85년부터는 대법원사법연수원 강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제1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김앤장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이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창회장으로 이재후(李載厚) 변호사가 새로 선임되었다. 그리하여 법과대학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11월 6일 김앤장 로펌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최용우(00학번), 정연희(03학번), 박희원(04학번) 기자가 참석하였다.

기자: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임 동창회장으로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후: 법과대학교 동창회장 된 것이 본인으로서서는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기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동창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가요?

이재후: 동창들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과 모교를 지원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던 동창행사 및 동창회 행사를 지속하여 모교와의 관계도 긴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여 장학금 지원도 계속하고 멘토 제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멘토 제도란 사회각계에 자리 잡은 훌륭한 동문선배들을 모교의 재학생 후배들 중 희망하는 학생과 연결시켜주어 일 년에 몇 번씩 만나서 조언을 하고 고민도 들어주는 제도입니다.

기자: 모교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법과대학에 오신 것은 언제입니까?

이재후: 가장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올해 7월에 김도창 교수님 추모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악캠퍼스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 좀 생소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학교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기자: 현재 법대 동창회와 법과대학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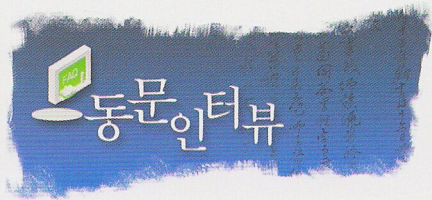
이재후: 지금까지 동창회 회장님들과 회원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모교 위한 사업도 많이 해서 현재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더욱더 긴밀하게 하고, 아울러서 후배들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는 데에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동창회와 학교는 연관이 되어 있지만, 후배들과 연결될만한 계기가 없어 아쉬웠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멘토 제도도 계획했고요. 동창회 행사와 같은 친목모임에도 재학생들이 편하게 참석했으면 합니다.

기자: 법과대학 재학 시절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그 밖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이재후: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만해도 지금과 달리 강의는 많이 있었으나 수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태현 교수님의 헌법강의와 유기천 교수님의 형법강의가 매우 인기 있었습니다. 유 교수님의 수업은 치밀하고 짙게 채워진, 학문적으로 심도 있는 수업이라 인상적이었고, 한 교수님 수업은 치밀한 이론보다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때 '헌법학'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헌법은 자유의 학문이다' 라고 하신 것과 당시 시대상황상,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두었다고 강조한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사회법학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입해서 노동법과





사회법을 주로 공부했습니다. 1960년쯤에는 사회법학회에서 영월의 탄광에서 광부실태조사라는 것을 하였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광부들의 실태와 대우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모임을 가졌으며, 졸업이후에도 가끔 만났습니다.

기자: 약력을 보니 미국 조지타운 법과대학 국제거래법 연구소에도 계셨던데, 어떤 계기로 가게 되셨습니까? 어떤 공부를 하셨습니까?

이재후: 1975년에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아시아의 법조인들을 초청하여 1년씩 공부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1년간 조지타운 로스쿨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국제거래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공부를 했어요. 당시 판사로 근무하면서 1년간 공부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 주로 소송법관계 분야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기자: 그쪽 학생들과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가요?

이재후: 거기는 로스쿨이라 일반대학을 나오고 바로 가게 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을 보자면 당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하기도 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자: 판사로서도 재직하셨고, 변호사로서도 활동하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하나씩 소개해주세요.

이재후: 판사는 한 15년 가까이 했고, 변호사도 27년 가까이 하여 다른 사건이 워낙 많아 일일이 말하기 어렵습니다.

떠올리자면, 예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문세광이 명동 시민회관 8.15 기념행사에서 영부인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직무유기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항소심에서 재판장을 맡았을 때였는데요, 법률적인 판단에서 무죄라고 했습니다. 당시 시대분위기상 무죄로 해도 되냐는 분들도 있었지만, 법대로 보면 직무유기라는 게 고의범인데 아무리 봐도 죄가 되지 않아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었습니다.

변호사 한 다음에는 지난 IMF사태 때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도산하게 되었는데, 그런 기업이 갱생하기 위해서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를 많이 밟습니다. 그 쪽 회사의 갱생을 위해서 바쁘게 일했었는데 그 때 그 일들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기자: 직업은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칠 텐데요, 판사의 위치에 있을 때와 변호사의 위치에 있을 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재후: 우리는 법조계라고 할 때 각각 맡은 역할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소하는 입장, 방어하는 입장, 판단하는 입장 각각 역할이 다른 것이지 중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양쪽에서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를 하면서 기록을 매우 열심히 보고 들어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대로 수행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어느 한쪽을 변론해야하기에 판단보다는 설득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내가 맡은 쪽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요. 유무죄의 고민이 많은 판사도 힘들지만, 그런 판사를 설득하고 있는 애기를 유리하게 이끌어야하는 변호사가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양쪽 경험을 다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한정된 정보만 갖고 판단하지만 변호사는 더 많은 정보를 갖

게 되어 이해를 더 잘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법조인으로서
는 다양한 경험을 가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현재 김앤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으십니까?

이재후: 지금은 민사소송, 중재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
요. 현재 김앤장에서는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여러 명인데 그 중 한사람으로 역할을 맡고 있죠.
후배변호사들과 같이 일하면서 의논도 하고 지도도 하는
입장입니다.

기자: 김앤장 외에 다른 대외활동은 어떤 것을 하고 계
십니까?

이재후: 한국법학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판사, 검사, 변호
사,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포함하여 우리나라 법률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가 최대의 단체인데 요새
거기에서 원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거기서 '저스티스' 라는
학술지 발간하고 학술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변호사협회' 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28년쯤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인데 한국 쪽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부산에서 총회를 열
어서 일본 변호사들과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일본어는 독학을 하여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요.

기자: 다수의 법과대학 학생들은 꿈을 가지고 입학하고
졸업하여 법조계로 진출하게 되지만, 살다보면 실망을
하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법조계
에서 일하면서 직업적인 회의가 드는 때가 있으셨나요.

이재후: 큰 회의는 아니지만 가끔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때 걱정이 됩니다. 특히 요즘 불
법적인 여러 가지 데모와 집단적인 시위도 있고, 그런 과정
에서 제대로 판결이 나와도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러면 왜 판결까지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
습니다. 법률가에게는 특히 법질서와 질서유지가 중요한
데, 잘 지켜지지 않고 집행되지 않을 때 우리나라가 더 발전
해야겠구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적인 회의가 든 적은 없어요. 법과대학에 온 것도 깊
이 생각하지 않고 문과였기에 와서 시험 쳐서 판사를 하다
가 변호사까지 되었는데, 지금까지 직업선택에 대해 후회
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재미있
는 직업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자: 현재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이재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개인을 위해서, 국가를 위
해서 일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과거
보다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
혀서 공부를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활동범위가 국제적
으로 확대되기에 외국어는 물론, 식견을 가지고 세계무대
에 나갈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특히 법률시장을 개방하라는 외국의 압력으로 우리나라
도 언젠가는 개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서 외국변호사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배
양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우리 변호사들이 실력과 규모면
에서 많이 성장하였으나 아직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전문성과 실력이 부족합니다. 외국변호사들이 들어오면
M&A, 회사설립, 중자 해외투자 및 국내투자 이런 과정에
많이 영입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형사사건을 맡거나 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변론하는 것은 못하더라도 주로 기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점점
국제화가 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관한 기본 원칙은
어느 나라나 비슷해지면서 기본법의 재판원리도 비슷해지
고 있습니다. 절차는 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법과대학 동문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씀이 있습니까?

이재후: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모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
니다. 얼마 전에 82학번 동기회 홈커밍이 있었는데 역대 최
고의 발전기금을 모았습니다. 동창회에서 더 많이 모여서
더 많이 모교를 지원해달라는 것이 동창회장된 입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에요.



구대환 교수

구대환 교수는 2006년 6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일본지적재산연구소에서 초빙연구원으로 있었다. 연구과제는 "Effective Protection of DNA Sequences and Gene Innovations" 였다. 구대환 교수는 일본지적재산연구소의 초청프로젝트는 대단히 매력적인 것이었으며, 왕복항공료, 체제비, 연구비, 연구자료 제공 등을 비교할 때 서구 어떤 나라의 초청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특히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때는 무엇이든지 찾아주고 번역서비스까지 제공해주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성낙인 교수

1. 한국공법학회 회장 취임

본교의 성낙인 교수가 지난 7월 1일 한국공법학회 제26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한국공법학회는 헌법·행정법 학자 및 실무가들의 연구단체로, 공법에 관한 연구와 발표, 학회지 '공법연구'와 연구서 발간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회원은 대학에서 헌법 또는 행정법 등의 공법을 강의, 연구하는 학자 및 이 분야의 연구기관 종사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4급이상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필리핀 대법원 주최 'Liberty and Prosperity Forum'에 한국대표로 참석

성낙인 교수는 필리핀 대법원이 주최한 'Liberty and Prosperity Forum'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다.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Liberty and Prosperity Forum'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다.



안경환 교수

안경환 교수가 10월 30일에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안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이론 눈부신 인권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서는 후발국가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 인권분야에서도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반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일이 그동안 살아온 길에 절대로 누가 되지 않을 것 같아 하게 됐다"며 "어려운 자리라는 주위의 만류도 있었지만 일은 어려운 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자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하기도 했다.



윤진수 교수

윤진수 교수(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는 11월 4일 동국대학교에서 한국비교사법학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私法과 競争秩序"를 대주제로 하여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다. 또한 윤진수 교수는 11월 18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사학회 학술대회에서 <사회의 변화와 중증에 관한 관습>이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상면 교수

이상면 교수가 11월 7일 박성호 대전시장이 주는 공로패를 받았다. 대전시는 지난 9월 말부터 10월초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국제우주대회(IAC)에서 중국 상해, 체코 프라하 등 세계유수의 대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 2009년 국제우주대회를 유치하게 되었다. 이상면 교수는 국제우주법연구소(IISL) 회원으로서 대전이 유치도시로 선정되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국제우주대회(IAC)는 전 세계 우주관련 학자 실무가 3천여명이 모여 일주일간 학술토론을 하는 거대한 국제회의이다.



이원우 교수

이원우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여러 차례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었다.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에서 “정보화의 진화에 따른 통신법 체계 발전방향과 현안쟁점”이라는 주제로 해외워크숍이 있었으며, 김용수 정보통신부장관정책보좌관과 이원우 교수 등이 주제를 발표했다. 그리고 9월 22일 ‘진보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통신법의 쟁점’을 주제로 1차 세미나가, 10월 28일 ‘통신시장의 특징과 통신법의 쟁점’을 주제로 제주도에서 2차 세미나가, 그리고 11월 24일 ‘통신시장규제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3차 세미나가 열렸다.



정공식 교수

정공식 교수가 지난 8월 1일 국산법학도서관 분관장으로 임명되었다. 분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자료의 선정 및 구입, 물품관리, 소속직원의 복무관리 등 법학도서관의 업무를 할한다. 정공식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였다.

1. 본래적 기능과 목적에 충실한 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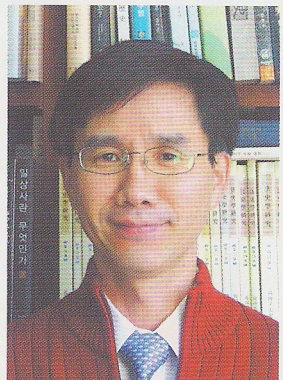
독서실의 역할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에 충실하고자 한다. 고시서적을 제외한 전문적 학술서적 등을 구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이제 삶의 핵심은 문화이다. 도서관은 단순한 문헌의 저장고가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법학도서관이 구성원들의 학술활동은 물론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3. 도서관 증축 자금 확보

도서관 증축은 구성원들의 의사를 모아서 추진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증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인데 국고지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최종고 교수

최종고 교수는 2006년 8월에 아시아게르마니스트 학회에 참석하여 '법률가와 법사상가로서의 괴테'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10월에는 폴란드의 크라카우에서 열린 세계법철학회(IVR) 이사회에 참석하여 그동안 출간한 영문저서 "Law and Justice in Korea"(서울대학교 출판부)를 발표하여 많은 호평을 받았다.

또한 유기천재단 이사로 취임하여 유기천재단 공식 회보인 '월송회보'를 준비중이며 지난 6월 발간한 "자유와 정의의 지성-유기천"이 학생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아 더 많은 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페이퍼백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는 내년 1,2월 미국 Duke Law School에서 강의할 비교법철학(Comparative Jurisprudence) 강의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한인섭 교수

한인섭 교수는 지난 11월 창원에서 열린 제6회 거창사건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하였다. 한인섭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지난 2001년부터 계속 거창사건의 진상과 그 경과를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제6회 학술발표회에서는 사건의 전모를 새로운 자료와 증언을 통하여 정리한 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다. 거창사건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입법안을 준비하는 활동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다.



호문혁 교수

호문혁 교수는 지난 9월 21일 일본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열린 국제민사소송법학회에서 "민사소송법의 계구와 전파: 한국의 경험과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소개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은,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세계 최고의 법과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재단입니다.

서울법대 동문, 학부모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 및 기업, 단체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익재단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서울법대가 진정한 법정의 실현 및 법학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세계 수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입니다.

■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만드는 재단입니다.

한 순간의 동정이나 의무감에서 돈을 내고 마는 일시적 기부가 아니라 모교발전 혹은 대한민국 법학 발전을 위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건강한 기부문화의 정신속에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인재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진정한 법정의를 통한 인간 존중의 정신이 단순한 구호나 학문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정신의 구현을 위한 바른 인재 양성 및 다양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法文化 실현과 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노력을 실천해 갈 것입니다.

■ 모범적인 재단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과 헌신적인 공익사업을 통해 공익재단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부자분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그 아름다운 만큼이나 소중하게 사용하여 영원히 그 뜻이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이 하는 일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 속에서 법학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고 법 제도와 법 실무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열악한 법학 연구 환경 및 학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갑니다.

1. 법학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2. 한국법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3. 법학 도서관 등 법학정보화 사업 지원
4. 법제도 및 법실무 개선을 위한 사업
5. 학계와 실무계의 학술교류 및 발전위한 사업
6. 법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約 定 書

성명(기관명)			
직 장 명	직 위:		
전 화 번 호	자택: 휴대 전화:	직 장: e-mail:	
주 소 (우편물 발송지)	□□□-□□□□		
본교와의 관계 (해당란에 표시)	☐ 동 문 ☐ 학부모 ☐ 법 인/단체 ☐ 기 타	입 학 년 도 : 학 생 성 명 : 대 표 자 성 명 :	입 학 년 도 :

약정금액	일금	원 (₩)
납부방법 (해당란에 표시)	□ 무통장입금	농협 서울대지점 079-01-434831 예금주 :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신한 서울대지점 873-03-005786 예금주 : 서울대 법학발전재단
	□ 지로입금 □ 자동이체(CMS)	지로번호 6308816 (연락주시면 지로용지를 송부해드립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납부기간 (해당란에 표시)	□ 일시납부	년 월 일까지 납부
	□ 분할납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납부
참여내용	기금용도	() 법학발전 () 환경개선 () 장학기금 () 도서 () 연구소 () 위임 기타
	부여하실 기금명칭 (단, 약정액이 일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 함) 및 지출용도 기금명칭 : 지출용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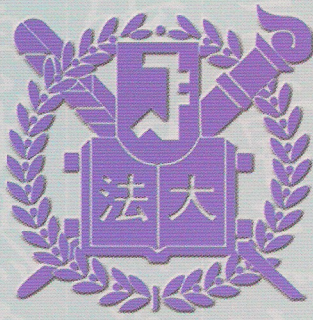
본 재단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이므로 세법상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출연할 것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韓國大典序

自古帝王之有天下國家也經綸草昧而未遑於典故守文之君遵
守舊章而又無事於制作雖曰漢高筭
無遺策而三略存規模史稱唐
家萬目俱張之作猶俟中策况
下於漢唐者乎
世祖握符中興功兼創守文昭武定禮備樂
興猶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孜孜圖理恢弘制作嘗謂左右曰我

大典序